

가족과 국가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폭력*

이진경 역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가족내의 폭력, 특히 여성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가족내에서의 폭력은 전세계적으로 모든 사회, 경제적 수준이나 소득, 인종, 문화, 종교에 관계없이 나타나고 있다. 가족내에서 일어나는 육체적, 성적, 정신적 폭력에는 구타, 여아에 대한 성적 학대, 신부의 혼수지참과 관련된 학대, 결혼빙자 강간 등 여성에게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전통적 관습 및 착취와 연관된 폭력 등 여러가지 형태가 있다.

다음의 몇가지 통계자료를 소개하면

* Papua New Guinea에서는 시골 여성의 67%, 도시 여성의 56%가 육체적 학대를 받고 있다. 도시부인의 18%가 남편의 폭력에 의해 병원 신세를 진적이 있다.

* USA에서는 생산연령에 있는 여성에게 가장 주요한 피해 원인은 부인에 대한 남편의 학대이고 대략 3~4백만 미국 여성이 매년 매를 맞고 산다고 한다. Population based survey의 자료를 보면 미국 여성의 21~30%는 그 배우자에 의해 한번이상 매를 맞고 산다고 한다.

* Peru에서는 경찰에 들어온 폭력신고의 75%가 부인학대 건이고 Bangkok에서는 정기적으로 매를 맞고 사는 부인이 50%가 된다.

* WHO자료에는 Africa에서만도 8,400만의 여성이 여성성기 절단으로 알려진 성적학대를 당하고 있으며, Sierra Leone의 연구로는 83%의 여성은 가끔씩 의학적 치료를 받아야 할 상태에

처해 있다고 한다.

* 살인에 관한 원인 분석은 놀랍다. Bangladesh에서는 부인 피살의 50%가 남편에 의한 것이고 Canada에서는 1987년 62%의 여성살해가 그 가정내에서 일어났다.

- 가정내 폭력 -

Kenya에서의 조사 보고에는 42%가 남편에 의해 정기적으로 맞고 있다고 하며, Santiago에서는 80%여성이 육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를 남성이나 친인척에게 받고 있으며, 그 중 63%가 상습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여성 피해의 가장 큰 원인이 매맞는 것인데 이것은 교통사고, 강도, 강간에의 수치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이다.

이러한 가정내 폭력은 단지 그 피해 하나에 그치지 않고 더 크게 확장되며, 많은 만성적 건강문제는 폭력과 관련이 있다. 그 예로 보건의료체계에서 학대받는 여성 대부분의 육체적 고통은 만성 동통이다. 그리고 매맞는 여성의 아이들은 공격적 일뿐 아니라 건강, 학교생활, 정서상 문제가 많고, 이러한 것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폭력적 성향을 띠게 된다.

- 아동학대 -

배우자 폭력이외에도 아동학대와 노인학대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정내 폭력으로 국제적 유행성

* Healthy Families for Healthy Nations, ICN - International Nurses' Day 1994.(pp.25~29)

향을 띄고 있다. WHO에 의하면 아동학대는 숨겨진 문제로서 자료의 부족, 부끄러움, 부정, 부인으로 그 일을 덮어두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이들을 잘못 키우는 것은 선진국이나 후진국 모두 이들을 잘못 키우는 것은 선진국이나 후진국 모두가 공통으로 가지는 문제로 특히 "학대받은 아이는 학대하는 사람"으로 자란다. 부인학대를 보고 자란 아이들은 그들 자신도 폭행당할 처지에 있는 것이다. Colombia조사에 의하면 부인학대시에 자녀들이 같이 있는 경우가 74%에 달했고 그 중 49%는 아이들도 폭력을 당했다.

아동매춘은 전세계적으로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어느 곳에서나 그 형태는 똑같다. 아이들은 횡포한 부모로 부터 도망쳐 나오던지 아니면 학대받고 있던지 그 부모가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을때 일어난다. 몇 나라에서는 부모가 자기 아이들을 유흥가에 팔아 넘기고 있다. 제3세계에서의 그 수치는 놀랍다. Thailand 80만, India 40만, Brazil 25만, 그리고 Philippines에서는 60만명의 어린이들이 거래되고 있다.

- 여성 성기절단 -

여성 할례로 알려진 여성 성기절단은 동서 Africa와 중동의 일부에서 행해졌었다. 지금은 Australia, Europe, North America의 이주 집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음핵이나 기타 외성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수술로 어린 소녀들이 포함된다. 이 일로 출혈, 파상풍, 간염은 물론 불결, 미숙한 시술로 인한 혈액감염, 시술시 동통으로 인한 shock 등의 외적요인을 가지게 되며, 장기적인 위해요인도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다.

- 노인학대 -

매년 미국의 노인학대 건수는 70~130만건에 달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 수치가 더 늘어나고 있다. 왜 노인학대가 일어나는지에 관한 연구에서 다섯가지 원인을 들고 있다.

- (1) 보호해줄 사람이 그럴만한 사정이 안되는 상태에서 노인을 돌보아야 할때

- (2) 돌보아줄 사람에게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노인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때
- (3) 가족 폭력의 반복 - 만약 매맞고 자랐다면, 성인이 되어서 때리는 자가 된다는 것
- (4) 학습된 행동으로 본 것을 배운다는 것
- (5) 약의가 있는 보호자가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

- 치명적 폭력 -

폭력은 가끔 그 희생자의 죽음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자살이나 살인으로 성간의 폭력이 일어난다. 지금까지 알려진 여성 자살의 가장 큰 요인이 학대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Cross-cultural survey에 의하면, 자살에 대하여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많은 문화권의 남아선호 사상은 여성들에게 치명적이기까지 하다. 영아 유기의 큰 요인은 여자에 대한 무관심으로 표현된다. India Punjab지방에서는 2~4세의 여자 아이는 같은 또래의 남자 아이에 비해 사망율이 2배나 높다. Bangladesh 농촌지역에서는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보다 영양실조율이 3배 가량 높다.

인도 경제학자 Sen이 연구한 남녀 성비에 의하면, 여성이 크게 차별 대우를 받는 중국의 경우 5천만명의 여자가 영양 부족, 여성건강에 대한 투자의 부족, 여러 종류의 폭력, 낙태 등으로 사망한다. Sen은 지금의 1.05배 만이라도 평등한 성대우를 해주는 나라의 수가 늘어난다면, 1억명 이상의 여성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 신부지참금과 관련된 학대 -

Indian사회의 끔찍한 부인학대의 형태에는 신부를 붙여 태우거나 지참금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 이 전통적인 신부가 가져오는 재산에 대한 계획은 빨리 부자가 되려는 신랑에 의해 일어나는데 젊은 신부가 그 돈이나 욕구를 다 채워주지 못할때 나타난다. 이 학대의 가장 심한 형태는 더 많은 재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서 자유를 얻기위해서 자살하던지, 죽음을 택하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 수치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데

남편이나 친척들이 여성의 죽음을 자살이나 사고로 돌리기 때문이다. 부엌에 있던 여성은 기름에 끼얹어지고 불위로 던져진다. 그런후 여성은 부엌에서 사고로 죽었다고 말한다. Maharashtra나 Bombay같은 도시에서 15~44세 여성 죽음의 20% 원인이 "사고로 불에 탄 것"으로 나와있고 15~24세 사이에서는 25%로 늘어난다.

- 건강문제 -

분명히 가족폭력에 의한 육체적 피해는 가족의 건강뿐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에도 많은 희생이 따른다. Peru 여성의 30%는 가정내 폭력의 희생자이다. 미국의 응급실을 방문하는 여성의 22~35%는 계속되는 학대에 의한 증세를 보이고 있다.

임신중에 가해지는 폭력은 모성과 태아모두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 매맞는 여성은 유산의 위험이 2배가 되고 미숙아를 낳을 확률도 4배나 된다.

US study는 매맞는 여성은 4~5배나 정신적 치료를 필요로 하고 5배나 자살율이 높다고 밝힌다. 매맞는 여성의 약 1/3이 심한 우울 증세를 보이고 술과 약물을 남용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여성은 그 학대가 시작된 직후에만 술을 마신다고 하는데 이는 견디기 힘든 상황을 잊기 위한 방편임을 암시한다.

성적 학대는 육체적 피해와 심각한 정서불안의 원인이 된다. Peru의 산부인과 병원에서 시행한 젊은 모성에 대한 연구는 90% 가량이 친부, 양부, 또는 가까운 친척에게 강간당했음을 지적한다. 이 피해자는 심각한 손상을 경험하게 되며, 의식불명, 정신질환을 보이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다. 임신하게된 것 이외에도 STDS 나 AIDS 위험도 갖게 된다. 또한 잠만 자거나 식사장애, 우울, 적대감, 분노, 자학, 악몽, 공포에 시달린다.

- 법적조치 -

The UN Commission on Status of Women 에서는 여성폭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어떤 형태의 성과 관련된 폭력이든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될 수 있고 이것은 공적 사적 삶에

서 여러가지 형태로 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된다."

이 문제를 다루는데 최대의 걸림돌은 가정은 신성한 것이고 가족내에서 일어난 일은 타인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이다. 1986년 폭력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한 UN Expert Group Meeting에 의하면 가정내 폭력 문제는 가족을 신성하고 제재하고 못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사고방식 때문에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과 더불어 법적인 제도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제약이 되어 왔다. 남편은 자기 부인을 제한적인 범위안에서 법적으로 구타할 권리를 가져왔다. 많은 제도하에서 가정 폭력은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왔고 또 많은 나라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는 고소를 한다해도 남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금기시 되어 왔으며, 경찰 공권력도 이러한 가정 폭력에 대하여 모호한 태도를 보여 왔다.

- 간호사의 할 일 -

간호사는 이러한 학대의 희생자를 처음 접하는 건강 관리자이기에 폭력의 주기를 중단시킬 수 있는 주요 역할을 할 기회를 가지고 있다. 이때의 폭력이란 구타당하는 여성을 비롯하여 아동학대, 노인학대, 성인 성폭행 및 근친상간 등을 포함한다. 환자가 간호사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간호사의 대답은 천차만별일 수 있다. 간호사는 비판적이거나 비난해서는 안되며 가해자에 대해서도 역시 비난은 피해야 한다. 기록에 "피해자는 주먹으로 눈을 맞았다"라고 쓴다. 이것은 피해자가 말한 "누가 그랬다"라고 쓰는 것보다 나은 법이다. 이런 정보가 주어지지 않으면 간호사는 적절한 자료를 위해 질문을 해야 한다. 어떤 피해자가 와서 "내 아들이 벽돌로 나를 쳤어요"라고 하면 간호사는 아무말 없이 그것을 적어야 한다. 그 이상 질문을 하지말고 중립적이어야 하며 간호사는 그 누구도 피해자로 만들지 않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구타당한 것에 대한 그간의 사건을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매우 직접적인 예로써 "당신 배우자가 차거나 때린적이 있습니까?"와 같은 질

문이 있다. 이와같은 질문들이 환자의 sexual history 로 시작되고 이것이 결국 가정폭력의 기준이 된다. 간호사는 학대의 피해자를 파악하고 상담해줄 필요가 있다. 여성위기센터가 전혀 없거나 아니면 경찰이나 다른 정부 당국으로부터 여성폭력이 방치되고 법적으로조차 보호되지 않는 나라라고 하여도 간호사는 그 어떤 여성도 구타당해서는 안되고 여성보호가 미래를 위한 선택임을 강조해야 한다.

- 정책적 활동 -

가정내 폭력에 관한 법적 체계나 충분한 치료제

도가 없는 나라에서는 간호사들이 지역과 국가적 차원에서의 교육중 하나로 폭력이 국가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말할 수 있다. 가장 필요한 것은 가정폭력을 범죄로 한 법을 개정시키고 보호책을 만드는 것이다. 게다가 특별법- 예를 들면, '재산을 목적으로 한 폭력에 대처하는'-이 제정되게 하는 것이다. 간호사들은 이러한 폭력이 공중보건문제에 위협을 초래하는 범죄로 볼 수 있도록 건강관리정책을 변화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다. ■

<51페이지에 계속>

최일섭(1993),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의 현실 진단과 발전 방안 모색",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의 현실 진단과 발전 방안 모색, 영유아 보육 발전을 위한 학술심포지움, 3-22.

표갑수(1993), "영유아 보육법령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정 방안",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의 현실 진단과 발전 방안 모색, 영유아 보육 발전을 위한 학술심포지움, 151-175.